광주시 국내 첫 세계수소에너지대회 유치

‘신재생 에너지’ 광주가 이끈다

광주시가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 대회(WHEC·World Hydrogen Energy Conference) 개최지로 확정돼 국제 사회에서 미래 에너지 선도 도시로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1976년부터 개최된 세계 수소에너지 대회는 에너지 관련 석학 2천여명, 100여개 에너지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다. 아시아권에서 일본과 중국이 개최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학 2천여명, 100여개 업체 참여
컨벤션산업 도약…경제 효과도 커

광주시 2014 세계수소에너지대회 유치단(단장 최종만 행정부시장)이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세계수소에너지협회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대회를 계기로 수소 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지역에 관련 산업이 움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화석연료 고갈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자원인 수소 에너지에 대해 아직 국내 연구 수준이 미미한 단계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최신 연구경향을 국내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4년 6월15일부터 6일간 학술회의· 세미나로 진행되는 광주대회에는 대학 관련학과 전공자를 비롯해 국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대거 참가하는 ‘국제 에너지 학술 제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2천여명에 달하는 학자들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광주에 6일 동안 머물게 됨에 따라 지역 홍보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시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대회 유치로 47억원의 직접 생산유발효과와 39억원의 간접 생산유발효과 등 86억원의 생산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 유치는 지역 컨벤션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등 자체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명실상부한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숙박시설, 관광 인프라 등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경쟁을 벌였던 미국 피닉스,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6개국 8개 도시와의 경합에서 유치권을 따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회 유치를 통해 광주시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16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장애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사랑 한마음잔치’에서 악단으로 분장한 어린이들이 공연을 마친 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외치고 있다. 북구청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160여명이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교·유치원 70~80%
초등·중학교 30~40%

학교 냉방시설 양극화

광주 고교 2곳중 1곳 학운위 심의 없이 모의 고사

광주시내 각급 학교 교실의 냉방시설이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설 모의고사 실시 고교 2곳 중 1곳은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16일 열린 광주시교육위 제168회 임시회에서 “냉방시설이 완비된 교실 비율은 일반계 고교와 유치원이 73.4%, 87.2%인 반면, 초등학교는 38.4%에 불과했고 중학교도 43.5%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컴퓨터실이나 실험실 등을 뺀 초·중학교 일반 교실의 경우 전체의 72~74%가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봉근 위원은 지난달 23일 실시된 사설 모의고사 실시 고교 36곳 중 절반인 18곳이 필수사항으로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에 따르면 이번 모의고사를 실시한 학교는 전체 44곳의 81.8%인 36곳이었다.

윤 위원은 “사설 모의고사는 학생수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 등 말썽이 적지 않다”며 “지침을 어겨가며 시험을 강행한 학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또 제각각인 학교의 자율 연수비 편성과 집행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올해 광주시내 초·중·고교 중 시교육청의 자율연수비 편성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34%인 98곳에 달했다.

교원의 직무향상을 위해 자율적 연수에 사용되는 자율 연수비는 규정상 1인당 5만원 이상이지만, 5만원 미만으로 책정한 곳은 고교 42.3%, 중학교 40.7%, 초등학교 28.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필기자 camus@r

“장마철 재산피해 10일 이내에 신고해주세요”

광주시는 16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끝나고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신고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등이며 주 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임업, 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설피해 등은 관할구청과 동사무소에,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비 신청은 재산피해 총액이 일정액을 넘어야만 가능한데 광주시의 경우 북구는 32억원 이상, 동구와 서구, 남구, 광산구 등 나머지 4개구는 26억원 이상이다. 문의는 광주시 방재관리과(062-613-8310)나 해당 구청 담당부서로 하면된다. /정후식기자 who@

광주도시철도공사- 송원대 철도 경영 산학협정 체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송원대학이 16일 산학협정을 체결하고 철도경영 정보교환과 신기술 공동연구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오행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위성동 송원대 학장은 이날 송원대 회의실에서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도시철도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학술 및 실무 정보의 교류를 비롯,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공동연구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송원대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운수경영과를 두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민생탐방·재난 취약시설 점검

박광태 시장 17~18일 양동시장 등 방문

박광태 광주시장이 17~18일 이틀동안 민생현장과 주요 공사장을 방문한다. 고유가와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살피고 장마철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과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의 현장방문은 올들어 처음으로 그동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비롯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등 광주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활동에 매진하느라 다소 소홀히 했던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첫 날인 17일에는 빛고을건강타운 공사현장과 하천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구 학동 광주천 상류의 방학교, 양동시장을 잇따라 방문한다.

양동시장에서는 대형 식육점과 생활필수품 판매점을 찾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관련 업계의 여론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물가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18일에는 무등산 증심사지구 생태복원 현장과 평동 2차산단 조성 공사장, 재난취약시설인 동곡배수펌프 등을 찾아 주요 사업의 진척도와 장마철 재난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영유아 도서 무료 대여

남구청 ‘도담도담…’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남구청은 오는 16일부터 남구 주월 1·2동 지역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도서를 대여해주는 ‘도담도담 아이세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 주월1동 주민센터 3층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진행되는 ‘도담도담 아이세상’은 언어정서, 수리 영역, 과학탐구, 사회인지 분야 도서 800여권을 비치하고 주월 1·2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여해준다. 영유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4학년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의 권장 도서도 함께 갖추고 있다. 주월동 인근 지역에는 영유아를 위한 무료 도서관이 없어 저소득 가정의 경우 도서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와 영유아들의 학습욕구 충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눔드리 책방’ 8호점

시립도서관 사직아동센터에 개소

광주시립도서관이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눔드리 책방’ 8호점이 18일 문을 연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사직지역아동센터에 개설된 8호점은 광주시 남구 월산동과 사직동, 서구 양동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무료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에는 교양도서와 아동도서 등 3천500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

나눔드리 책방은 광주시립도서관이 지난 2006년 소외계층 밀집지역과 공공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에 나서 지금까지 광주임마누엘장애인교회(1호점), 무지개지역아동센터(2호점) 등 7곳에 개설됐다. 문의는 062-671-0568. /정후식기자 who@